



‘일본과 동아시아 -공명(共鳴)·공창(共創)·공영(共榮)의 세계를 지향하며-’

다니노 사쿠타로

공익재단법인 일중우호회관 고문,
전 주중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작금의 혼돈을 거듭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중국사람들은 자주 ‘국민의 힘으로 중앙관료와 정치가를 움직인다’ 고 말한다. 지방의 힘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최근의 테마라고 생각한다. 1972년 일중 국교정상화 원동력의 하나가 된 것도 중앙정부를 독려하고 때로는 질타하면서 움직여 간 경제계를 포함한 국민의 힘이며 그에 연계한 지방정부의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혼돈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지방정부 여러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혼풍을 불러 일으키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제일이라는 생각 하에 대 중국관계에서도 좁은 2국간의 무역이나 투자의 세계에 사건을 대입하여 2국간의 손득계산의 사고방식으로 국제관계를 취급하는 것 같다.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정식탈퇴 통고 등 각 국제기구로부터도 이탈하려는 경향에 있다. 또한, 영국도 포함한 유럽의 상황을 보더라도 좌우 양 파의 포퓰리즘 대두 등 중도의 소중한 세력이 힘을 잃고 각국에서 심각한 분단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한편, 예를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지구온난화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긍정적인 대응을 표명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의향은 어떻든 지방정부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미국의 강점이다.

일중관계에서는 중국의 방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전처럼 일본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폭매’ 에서 일본과 일본문화의 체험,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도회지로부터 지방관광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정세의 영향으로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한편으로는 조선통신사의 교류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K-POP으로 상징되는 젊은이들사이의 음악교류도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한 가운데, 일중한 학생의 국제교류를 열심히 실시하는 대학도 있어 그러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동아시아의 가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상황을 말할 때 이전에는 일본을 선두로 싱가포르, 한국 등이 여기에 이어지고 그 뒤에 중국이나 ASEAN 각국, 인도가 이것을 뒤쫓아가는(그리고, 앞서가는 나라들로부터 이것을 뒤쫓아가는 나라들에게 자금과 기술이 제공됨) 이른바 ‘안행형태의 경제 발전’으로 불렸다. 그러나 현재는 각국이 발전을 이루어 각각이 창공을 나는 시대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서로 자극을 주고 좋은 점을 배우는 ‘공명’, 서로 땀을 흘리면서 소프트 파워도 포함하여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공창’,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공영’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펼쳐가야 할 과제는 환경문제, 고령화, WTO개혁, UN개혁 등 수많은 존재한다. 독일과 프랑스 간에는 2차 대전 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여 화해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전후 유럽의 초석을 쌓아왔다. 일본이라면 나라현, 중국이라면 시안, 한국이라면 경주 또는 백제, 풍요로운 동아시아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를 무대로 하여 언젠가 동아시아판 엘리제조약이 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아라이 지사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보다 확실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최전선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